

# 日本에서의 原子力情報과 PA(I)

現在 日本에서는 國家全體 電源중에서 原子力發電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고 있다. 日本原子力PA問題研究會에서는 原子力發電이 이와 같이 發展하게 된 社會구조의 變化를 포함하여 原子力PA에 關係 중 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에 이 검토내용을 소개한다.

## 物資剩餘로 「選擇의 時代」로

「배부른 시대」라고 말하는 현대의 사람들은 「진짜」를 찾아 식도락을 즐긴다. 戰後의 혼란시에는 어느 나라나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것을 구하러 뛰어다녔다. 즉, 선택할 여지가 없는 시대였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競爭」의 시대에 들어서 지금은 바야흐로 「물자」가 넘치고 있다. 물자가 아깝다고 생각하며 자란 사람은 적고, 젊은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돌아다닌다. 또 물가도 안정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정해져 있는 토지문제를 별도로 한다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좋겠다.

「무엇이 풍요로운가? 거주와 사회자본 등을 보면 아직도 빈약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개인의 대부분을 보면 이렇게 분석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신체장애자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인식과 원조, 앞으로 틀림없이 사회문제화되어 갈 「노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정비 등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수준」에서 보는 한 물자에 풍족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아도 「자신은 중산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물자가 풍족해지자 사람들은 「진짜」를 고르는 행동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중 하나의 선택이 「자연식품」과 「무공해식품」이다. 슈퍼마켓 앞에 나와 있는 「농약야채」보다 2~3배나 비싼 「무공해야채」가 맛도 좋고, 자연에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라는 것이다. 돈만 내면 무엇이든 입수할 수 있는 시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物資剩餘 = 電力도 남아돈다

「이 만큼 물자가 남아돌고 있으니까 전기도 남을 것임에 틀림없다」

작가 廣瀬隆씨는 이런 사회변화의 조류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고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덧셈으로 설명했다. 듣거나, 읽은 사람은 누구나 납득하여 「위험천만한 원자력발전」의 추방에 동조했다.

「역시 남아도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 전력회사가 하는 말은 신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력회사」 = 「거짓말쟁이」라고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의심에 찬 눈으로 보게 된다.

「1988년 여름의 피크수요가 1억1,449만kW이고, 설비용량은 1억6,294만kW이며, 그중 원자력 발전이 약 2,800만kW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원자력이 없어도 남아돌게 되기는 하나,…」라고 변명해도 이 「...되기는 하나」까지의 고정된 개념은 지극히 알기 쉬운 「덧셈」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로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번 잃은 신용을 되찾는 데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電光源을 選擇하고 싶다

「원자력발전소가 道內에 생기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전력요금을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北海道電力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되는 泊 발전소의 추진을 위해 전력회사는 물론 지역의 경제관계자도 이와 같은 말을 했었다.

그러나 원유가격의 저하와 더불어 지금까지 추진축이 최대의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던 「경제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미국 처럼 석탄이 풍부한 나라라면, 일부지역에서는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싸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안전성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경제성만을 비교해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그 우위성을 잃고 있다.

물자가 넘치는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석유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만큼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감각이다.

따라서 「남아돌고 있는 전기」의 상황 속에서 「경제성이 없는 원자력발전」에 매달리는 전력회사와 당국에 대해 의문이 짝뚱다.

그 「선택」의 연장으로 유도되는 것이 「전력의 선택」이다.

「지금 지불하고 있는 전력요금의 2~3배라도

좋습니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자력 이외의 전력과 계약하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전력은 일반물자와 동일시되고 있다. 전력의 경제성 등을 무시하고 「비싸더라도 납득이 가는 물건을 사고 싶다」는 주장이다. 비싸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무공해야채를 사는 것과 같은 이론에 근거를 둔 것이다.

### 健康에 대한 關心과 消費者團體

물자가 풍요롭게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으로 집중되었다.

이 「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연식품과 무공해식품이 붐을 일으켰으며, 또 한편 식품첨가물이 든 식품을 싫어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상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편」인 생활협동조합(生協)이나 생활그룹은 크게 비약했다.

대부분의 이런 소비자단체는 물자가 풍족해진 1970년 이후에 결성되었으나, 박차를 가한 것은 1973~1975년의 석유평화이었다.

경제기획청에 의하면 1986년도 소비자치단체 수는 縣域·地域·生協을 포함하여 모두 7,810개 단체이고, 회원수는 4,135만1천명에 이른다. 물론 복수의 단체회원도 있기 때문에 실제회원수는 감소되지만, 3,0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表1〉 消費者團體의 推移

年度	消費者團體				生活協同組合數	生活學校數	合計
	中央團體	縣域團體	地域團體	小計			
72	23	293	879	1,195	1,249	1,592	4,036
73	26	1,539		1,565	1,249	1,602	4,416
74	28	354	1,535	2,017	1,274	1,757	5,048
75	33	306	2,034	2,373	1,290	1,887	5,550
76	30	314	2,268	2,612	1,336	1,813	5,761
77	29	358	2,561	2,948	1,348	1,885	6,181
78	29	345	2,571	2,945	1,355	1,904	6,204
79	29	353	2,950	3,332	1,349	1,980	6,661
80	29	371	3,191	3,591	1,338	2,046	6,975
81	28	397	3,237	3,712	1,335	2,063	7,110
82	28	424	3,677	4,129	1,308	2,100	7,537
83	29	402	3,764	4,195	1,299	2,092	7,585
84	29	420	3,876	4,325	1,318	2,104	7,747
85	29	409	3,947	4,385	1,308	2,117	7,810



▲ 生協의 움직임은 전국적이다.

이 소비자단체들의 관심사항은 경제기획청이 1986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건강문제(59.9%)가 수위였다. 따라서 이 최대의 관심사인 식품을 오염시키는 「에너지원」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소비자대회의 대회슬로건을 보아도 1983년의 22회부터 식품문제가 소비자운동의 주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외의 압력에 굴한 식품첨가물의 규제완화를 중지시키자」고 주장한 22회 이후의 슬로건은 「식생활을 재검토하여, 주요식량의 자급률 향상과 안전을 확보하자」(23회),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인증제도의 폐지나 소비자행정의 후퇴를 허용하지 않고, 결함상품 및 악덕상법을 일소하자」(24회), 「건강 최우선의 소비자행정을 확립시키자」(25회), 그리고 「소비자피해를 용서하지 않고 안전, 안심, 건강 최우선의 소비자행정을 확립시키자」(26회) 등으로서 일관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안전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 生協의 壓力을 받는 青森縣農協

東京南部生協(조합원 26,300명)은 작년 11월 7일 조합원 6,154명의 서명을 받아 青森縣을 방문하여 原田一實縣議會議長에게 六個所村에 건설되는 핵연료사이클시설의 백지화 철회를 요청함과 아울러, 縣農協中央會의 회장에게도 사이클시설의 반대행동을 요구했다.



▲ 식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동 生協은 「가격 보다 안전성」을 활동의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시설의 가동에 따르는 「방사능오염」을 지적, 「消費地는 핵연료사이클시설(의 운전)에 의한 식품오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3억5,000만 엔에 이르는 縣內 농협과의 거래중지를 시사했다.

이에 호응하듯이 青森縣 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의 生協 700개소에 대해 핵연료사이클시설의 건설반대 서명운동을 요청했다. 즉, 전국의 생협조합원 1,200만명을 동원하여 건설의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운동의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青森縣內의 각 농협은 동요를 숨길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남부생협과 10년 가까이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常盤村농협과 養鷄농협은 심각하다.

「나쁜 소문은 과장되어 전달되므로 이대로 가면 사이클시설 가동 전부터 縣農産物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 여기(青森縣)만이 집중공격을 받아야 하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고아, 난민이 되겠다. 다른 縣에도 재처리시설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라고 말하며 고민하고 있다. 「차별은 풍요로운 사회의 부산물」이라는 말이 있으나, 전국조직에 의한 生協의 「青森差別」은 「食品汚染」이라는 기치 아래 더욱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된다.

## 確實한 生協의 「情報傳達루트」

소비자단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정보전달루트」이다. 소비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독자적으로 흘려왔으나, 앞으로는 「식품공격」에 얽힌 「反원자력정보」가 증가할 것이다.

그 정보는 확실히 조합원에게 전달된다. 정보를 받은 주부는 조합원이 아닌 이웃 주부들에게 정보를 흘린다. 그 주부는 다음 사람에게……의 상황이 이어진다.

할당을 받아서 산출한 야채류를 직접 회원집에 운반하는 무공해야채류의 소비자루트가 되면서 철저히진다. 강제적으로 반원자력에 대한 책자가 배달되는 일도 있다. 원자력PA상 이 정보 전달루트를 무시할 수 없다.

## 「食品」에 대해선 누구나 「權威者」

앞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됨에 따라 여러가지 스포츠교실의 개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0만엔이라는 고액의 호텔스포츠회원권이 팔리고 있는 현상황을 미루어 보아도 건강지향에 대한 투자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식품정보」도 귀중한 정보원이 될 것이다. 건강잡지가 잇따라 창간되어 상업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한창 왕성하게 일할 50대를 포함한 광범한 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된 시대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잡지는 영리가 목적이지만, 소비자단체로 부터의 식품정보는 「손수제작」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욱 커진다. 「식품」에 관한 한 「권위자」가 필요없다. 「동조자」가 나오면 「건강의 편」으로서 인정된다. 그런 의견은 당당하고 버젓이 통용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 家事노동의 解放과 社會參加

요즈음은 여성시대라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성시대」라고 새삼스럽게 말해야 하는 그 자체가 여성의 지위가 낮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가는 현저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참가」란 主婦專業과 1차 산업 이외에 대한 여성의 사회참가를 의미한다.

실제 테이터를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기혼부인의 60%가 「일하는 부인」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일을 첫째로 하는 남성과 달리 그 내용을 크게 나누면 세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가 일을 인생의 보람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녀들은 평생(정년까지) 직장을 인생의 한 파트너로 삼고 있다. 이런 여성은 일하는 대가로서의 「돈」보다 일의 내용과 일이 갖는 사회참가에 강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과는 정반대로 경제적 이유에서 「돈을 벌기위해 일하는 여성」이 있다. 본래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은 싫지만,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성」이다.

마지막 그룹은 파트타임으로 그녀들은 「자유로운 돈, 자유로운 시간」을 위해 일한다. 취미를 위해, 또 여행을 위해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으며, 그와 같은 것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일할 사람」이 증가했으므로 가정내의 경제력은 고조됨과 동시에 그 관심사도 가정내에서 밖으로 향한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남편을 포함한 남성의 이해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회의 변화도 있으리라.



▲ 소비자 단체의 정보는 확실하게 조합원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준 것은 전기에너지에 의한 가사노동에서의 해방이다. 어떤 여자에게 의하면 5인분의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전기에너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 「食品生産現場」의 이탈과 企業不信

원자력PA에서 고려해야 할 한가지 사실은 사회진출에 의해 여성이 「식품생산현장」에서 멀어진 것이다. 戰前이 좋고, 戰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또한 「식품생산현장」에서 멀어진 것이 나쁘다는 말도 아니다. 단지 그런 사회의 변화를 지적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농촌, 도회지를 막론하고 「식품생산현장」에 있었다. 농가는 문자 그대로 1차생산으로 「식품」에 종사했다.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멸치를 갈거나, 간수로 두부를 만들었다. 전후에도 1965년대 쯤까지는 주부가 저녁밥 준비를 오후 3시경부터 시작할 정도로 「식품의 현장」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식품생산현장」은 이미 가공되어 슈퍼마켓에서 「準完成品」을 사와 식탁에 진열할 정도의 「공간(다이닝룸)」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사회진출현상을 기업이 놓칠리가 없다. 따라서 「식품생산현장」에서 멀어진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스컴의 보도에 의해 모든 식품에는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실태를 알게 되었으며,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항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옛날 그대로의 「식품생산현장」에 있는 무공해농업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연식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때부터 소비자거리의 연대에 의한 소비자단체가 결성되었으며, 이 시점부터 「기업에 대한 불신」이 싹튼게 되었다. 「쇠(鐵)도 식품이라며 판다」고 말할 정도로 어느 기업이나 다각화를



▲ 독자의 식품을 생산하는 生協.

추진하여 식품시장의 일각을 잠식할 것은 명백하다.

인스턴트식품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즉석라면이 등장한지 30년. 일본 국내에서 소비된 것만 해도 작년 한해동안 세계인구에 필적하는 45억 개. 또한 「식품의 현장이탈」이 세계적 경향이기 때문에 전세계를 합계하면 130억개에 달한다.

## 距離感있는 電力會社가 標的

이와 같이 「식품의 현장」에서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 진짜인가」에 쏠리게 된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지 않은지, 持病에 나쁜지 어떤지... 등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식품의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며, 식품정보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좀처럼 감시의 눈이 닿기 어려운 「대기업」의 식품일수록 일개 주부에게서는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까다로운 취급을 받게 마련이다.

여기서 「배양된」 반기업의 눈.

방사능에 의한 「식품오염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전력회사는 좋은 「표적」이 되었다. 캐리어·우먼도 「기업인」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관계없는 전력회사에 대한 공격에는 용이하게 참가하기가 쉽다.

이상이 「사회변화」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사회학 전문가의 견지에서 보면 아직 많은 요인, 예를 들면 반핵운동이나 美蘇에 의한 핵군축,

핵비확산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도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 專門家에서 부터 市民의 손으로

오늘날의 원자력논쟁을 보면, 종래의 원자력 논쟁과는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종래의 논쟁이 전문가수준에서, 그 논쟁점도 구미학자의 견해를 출발점으로 한 데 반해, 오늘날의 원자력논쟁은 「자신의 문제로서,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6개국 410기에 이른다.

일본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일본원자력발전의 東海 1호기는 영국의 콜더홀형이고, 그 이후의 도입로는 경수로로서 美國製이다. 따라서 자기기술이 아닌 이상 구미의 데이터가 중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전세계에서 운전되는 원자력발전은 석유화력으로 환산하여 연간 4억톤의 석유연료에 상당함으로써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생산량(1987년 실적 2억 1,240만톤)을 상회한다.

全電力의 70% 가까이를 원자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를 선두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나라는 19개국(1987년 실적)이다.

31.2%를 차지하는 일본도 해마다 가동률이 향상되어 1982년 이후 70%를 유지함으로써 사실상 全稼動상태에 들어가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원자력선진국에게 데이터를 「건네주는」 입장이 될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연료봉의 안전성도 구미 보다 한단위 낮으며, 긴급시의 원자로정지(스크램회수)도 한단위 낮다.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일본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미의 데이터를 인용하는 논쟁의 시대는 지나갔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력은 남아돌고 있다」 「에너지의 선택을 우리 손으로」 「일본열도가 원자력의 묘지가 된다」 「원자력은 석유의 대체에너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다」 「화장실없는 맨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자」 「붕괴된 원자력의 경제성」 「제2의 체르노빌은 언제 발생할 것인가」 「핵무기와 직결되는 원자력」 등 자신의 견해로 반원자력을 이야기한다.

「저서는 안되는 핵연료사이클전쟁. 자식과 손자를 위해 돈 따위에 현혹되지 말고…」 六個所村에서는 어민들이 가사를 바꾸어 만든 애조편 유행가가 퍼지고 있다. 거기에는 절박한 비장감은 없으며, 운동의 영속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인지 감성에 호소함과 동시에 「공연」같은 느낌까지 느껴진다.

## 政黨色없이 市民水準에서

최근까지는 전문가끼리의 논쟁이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나름대로의 「논리」도 갖고 있었다. 해성과 같이 「반원자력 운동의 기수」로 등장한 작가 廣瀬隆씨를 별도로 하면 「상대측의 얼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부, 젊은이들이며 지역성도 없다. 또 매우 게릴라적이고, 행동적인 것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상대를 모른다는 말은 「정당색」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生協 등의 조직력을 동원하여 「일본판 녹색당」이란 정치단체가 나오게 되면 별도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무인 상태다.

사회당도, 공산당도 「現狀況에서는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여기에 정당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의사결정은 현지의 리더가 하고 있으며, 「내가 해야만」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그룹에 속한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작년 4월 23, 24일 양일간 東京·日比谷공원

에서 개최된 「반원자력 1만명집회」. 거기에서는 여러가지 분과회의가 열렸으나, 관계자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반원자력에 대한 자료제공」이었다고 한다. 「언제, 어디라도 전화 한 통화이면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자료제공은 바로 반원자력운동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류의 출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 선명한 對比, 兩者의 行動

이런 행동양식을 전력을 비롯한 추진측과 대비하면 명확한 대조가 이루어진다.

당국은 업무의 일환으로서 책정된 비용의 범위내에서 「할 수 없이」 「정해진 방침과 내용」에서 「마지못해」 대응하는 데 반해, 반대파는 자주적으로 싫은 일을 자진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다.

9시부터 5시까지라는 샐러리맨적인 자세로 그 시간내에서 「할 수 없이」 또는 「입장상」 행동을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반대파는 상대에 따라 자유롭게 바뀌며, 화제도 풍부하고 제한도 없다.

의견결정도 본사가 정하는 전력측과 대조적으로 즉석에서 임기응변으로 현지사이드가 정하는 반대파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크며, 정보도 종합적이고 내용도 「있는 그대로」에 반해 당국측의 정보는 사정이 좋은 것이 우선한다는 「선택시스템」이다.

또한 당국측은 「어설픈 정보」는 먼저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가공하여 「자신의 유능함을 남긴」 후에 보고하기 때문에 시간도 지체되는 데다가 내용도 치우친 것이 된다. 짧은 시간에 그대로의 내용을 전하는 반대파와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 나쁜 情報일수록 價値가 있다

「리스크·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최근 사용되고 있다. 수년동안 수많은 간행물이 발행되었

고, 모두 호평리에 잘 팔리고 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이웃나라가 국경을 넘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구미와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인식의 차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향한 세계의 눈은 냉엄하다. 거기에서 「리스크·매니지먼트」인 위험관리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리스크·매니지먼트」의 권위자 한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네가티브·인포메이션」 즉, 「나쁜 정보」이다.

「싫은 정보를 빨리 흘려 준 부하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싫은 정보일수록 들어가기 어렵고, 그것이 치명적이 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며, 「마이네스정보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을 때가 조직의 위기」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리스크·매니지먼트는 도달주의」라고 하여, 「좋은 정보 보다 가치가 있는 “나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는 조직형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원자력PA를 생각하는데는 이 「리스크·매니지먼트」를 고려하게 되는 일이 많다.

## 「都市型」이지만 「大衆型」은 아니다

오늘날 반원자력운동의 특징의 하나로 들고 있는 「도시형」 「대중형」이라는 용어가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反원자력운동은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는 지역과 그 주변에서 강렬했었다. 도시지역의 반대운동도 그 사이트에 가까운 도시나 縣內에 그치고 있어, 東京·大阪·名古屋·札幌 등 대도시 사람들은 대체로 무관심했었다. 또한 반대조직도 「지역주의」에 철저했기 때문인지 획적인 연결과 결부는 그다지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전력에 의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비거점인 도시

에서 반원자력의 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현지까지 가서 반원자력행동을 전개한다.

작년 2월 四國電力의 伊方발전소 출력조정운전시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관 사람」이었다. 東京과 札幌에서는 적벽이 어린이를 안고 찾아 온 주부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여 「都市型」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반대운동이 입지인 시읍면에서 볼 수 있는 점에서 말하면, 이 「도시형」은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인 「대중형」이라는 말은 부적절한 단어로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입지 시읍면에서 실제로 「뿌리를 내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입지와 관련하여 시가지를 양분할 정도로 격화되어, 그것을 수습한 경험을 가진 前 市長은 이렇게 말한다. 「이 지방은 지극히 평온하다」고.

또 어떤 원자력관계자도 「이 지역은 조용한데 왜 「대중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하고 의아심을 나타내고 있다.

## 「大消費地」를 逆으로 利用

원자력 입지는 過疎지대가 많다. 따라서 전력 회사의 지점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며, 지역주민과도 대개 안면이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 형성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소재를 알 수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는 어떤가. 定住者도 많지만 유동 인구도 많다. 사람을 장악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東京 新宿區를 예로 든다면, 區民의 절반이 3년 이내에 바뀐다고 한다. 전력의 대소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대도시에서의 반원자력운동. 그 「도시형」의 反원자력운동은 生協 등

을 통해 생산지에 압력을 가한다. 조용한 농어촌도 生活源인 「단골 손님」의 요구라면 듣지 않을 수 없다.

北海道電力의 泊發電所 인근지역에서도 똑같은 소비자단체로 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다. 멜론 등의 부산물 반입을 거부한다고 하므로 그 지역 농협은 青森縣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 「도시형」의 반원전운동은 이렇게 하여 지방농어업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 「不安의 時代」와 「原子力」

현재는 불안의 시대라고 하고 있다. 제3차 종교붐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일본 문화청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법인은 약 18만3천여 단체이고, 신자의 수도 약 2억3천만명으로서 양쪽에 가입한 신자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구의 약 2배가 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단적으로 말해서 「불안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물질이 풍부해지면 「선택」의 시대에 들어가 환경과 마음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게 된다.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환경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한편으로 사무기기의 도입 등에 의해서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을 낳는다. 실제로 기업에 따라서는 이미 워드·프로세서를 다루지 못하는 셀러리맨의 수가 적을 정도이고, 그 사람들은 확실히 고립화되어 간다. 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신체의 슬럼프를 초래하여 입원하든가 사직당하게 된다.

핵가족의 발전에 의해 노후의 불안도 증가하며, 상담상대도 없다.

1986년도의 자살자는 약 25,000명이었는데, 그 절반이 중간관리직이었다는 사실은 「선택의 시대」에 방황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10년전까지는 일요일 예배가 텅빈 상태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다.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TV앞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수요가 3천명이라고 한다.

불안의 시대에 「방사능의 공포」는 바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 推進側の 아킬레스腱

지금까지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대해 서술했다.

원자력PA에 대해서 「이거다」라는 「결정적인 것」은 없다. 순수한 과학기술론 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벌써 반원자력운동은 종식되었든가, 끝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입지문제에서 분명했듯이 「저사람이 찬성하면, 나는 반대」라는 지역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에서 나온 반대도 있다. 또한 반원자력의 새로운 조류이기도 한 도시의 주부층과 젊은이에게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문명론, 가치론에서 오는 반대도 있다.

그 사회변화의 투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끝까지 파고들어 보면 「왜 지금 원자력인가」하는 論議로 집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원자력의 필요성 인식이 바로 추진측과 반대측의 논거로 되어 있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있어서 이 원자력의 필요성 「인식」이 없으면 논의는 공전하여 성립되지 않는다.

그 노력은 오로지 추진측에 달려 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해야 한다. 이 세상은 어느 한쪽이 「고생」하도록 되어 있다. 신문이 많은 독자에게 친밀해져 읽히는 것은 「필자」인 기자가 「이해하기 쉽게」 고생한 결과임에 틀림없다. 「나만 알면 된다」는 식이라면 문장은 명쾌함을 잃어 독자의 생활감각에서 벗어난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독자와 멀어지기 시작한다.

오늘날 원자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

는 사람이 많은 것은 廣瀬隆씨를 비롯한 「반원자력」 사람들의 「고생」이 추진측의 고생을 상회했다는 「고생 밸런스의 투영」 그 자체라 해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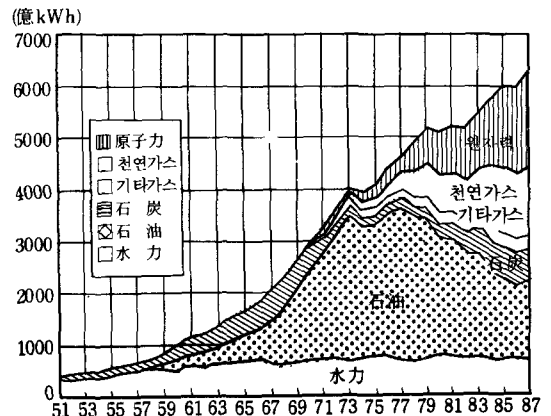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에서 쉬면서 TV라도 보면서 지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앞으로 몇사람이나 주말과 주야를 막론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에 추진측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 着實히 增加하는 電力需要

1987년도에 일본의 발전전력량은 6,373억 KWH이고, 전원별 점유율을 보면 원자력이 수위로서 29.1%(1,852억KWH), 이어서 석유 23.7%(1,508억KWH), LNG 21%(1,339억KWH), 수력12.1%(770억KWH), 석탄 9.9%(630억 KWH), LPG 0.5%(34억KWH), 地熱 0.2%(11억KWH)였다.

현재의 9개 전력회사체제가 확립된 것이 1951년 5월 1일. 그 당시 일본의 발전설비용량은 854만KW였고, 전종업원은 13만5천여명이었다.

36년 후인 1987년의 설비용량은 1억6,294만 KW로 19배나 증가되었다. 경제의 확대와 생산수준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전력종사자는 1951년도 비슷한 수준인



〈그림 1〉 전원별 발전전력량의 비율

〈表2〉 전력공급목표

	発電電力量 (億 kWh)					
	1987年度		1995年度		2000年度	
	(推定実績)	構成比 (%)		構成比 (%)		構成比 (%)
原子	1,852	29.1	2,690	35	3,480	40
石炭	630	9.9	920	12	1,180	14
L N G	1,339	21.0	1,640	22	1,640	19
水力	770	12.1	970	13	1,060	12
一般	688	10.8	860	12	930	11
揚水	82	1.3	110	1	130	1
地熱	11	0.2	60	1	150	2
L P G	34	0.5	30	0.4	30	0.3
石油	1,508	23.7	1,100	15	950	11
其他	229	3.6	190	2	190	2
合計	6,373	100	7,600	100	8,680	100

13만6천명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동안 어떻게 합리화가 추진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장래는 어떻게 될까.

「21세기는 전기문명시대」라고 말하듯이 전기 이용의 확대가 더욱 추진될 것이다. 약 1년 반 전인 1987년 10월 1일에 발표된 電氣事業審議會 需給部會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1995년의 전력공급은 7,600억KWH로, 2000년이 되면 8,680억 K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커져서 1995년에 35%, 2000년이 되면 40% 대에 이르며, 이어서 크게 비약한 것은 LNG화력으로 1995년 22%, 2000년 19%로 지금보다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불안정한 에너지원인 석유화력은 15%(1995년), 11%(2000년)로 계속 감소되어 탈석유가 한층 가속될 것이다.

따라서 省에너지가 추진되어 그것을 위한 기술개발이 진보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의 수요는 확실히 증가될 것이다.

### 오늘날 繁榮의 힘은 原子力

「인간은 너무 사치하고 있으며 전력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거리에서 보면 자동차나 네운싸인 등 쓸데없는 전력소비가 아직도 많다. 그런 것을 재검토하여 “참된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전력은 아직 충분하다」

이것은 시간을 정지시킨 논리이다.

에너지자원은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다. 시간과 함께 각국의 자원 대책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이나, 국제정치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두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이미 체험하였다. 그런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은 공기와 같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도 아니다. 1985년도 데이터에 의한 전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를 보면, 일본은 선진국중에서도 「압도적」인 의존국으로 80.5%에 달하였다.

일본과 똑같이 원자력개발을 추진하여 이미 全電力의 70%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해외에 대한 에너지의존도는 57.8%, 서독 49.9%, 미국은 11.2%, 北海油田을 가진 영국은 반대로 에너지 수출국으로 되어 있다.

어느 나라나 에너지자립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들은 원유가격의 고등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이끈 사실을 알고 있다. 에너지가 격이 일거에 4배나 올랐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곤란을 겪었다. 생산코스트가 오르고 심한 통화팽창을 경험했으며, 비싼 제품이 팔리지 않아 수출량도 급격히 떨어졌었다.

두번에 걸친 석유위기를 극복한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경제구조의 전환을 추진하여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하였다. 국민은 물론 관계자의 피나는 노력과 지혜에 의해 극복해 온 것이다. 거둬되는 圓高에 의해 대부분의 지방영세기업은 도산의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합리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질이 높은 노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을 비롯한 「脫石油電源」의 착실한 확대에 의해서 「石油體質」이었던 것을 석유로 부터의 외압에 강한 체질로 바꾸어 간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다투어 원자력발전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전세계에서 40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생산량 이상의 석유를 절약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원유가격의 하락에 의해 석유화력과 원자력발전원가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석유화력의 1/2」이라는 것이 수년 전부터의 상식이었을 정도로 원자력발전이 가장 값싼 발전원이었으며, 그 값싼 에너지원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 政府의 展望을 상회하는 電力伸張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가 작년 7월 28일에 정리종합한 에너지수급전망에 따르면, 1987년도의 에너지수요는 전년도의 감소에서 일전하여 대폭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5.2%의 신장률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래 최대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內需를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에 힘입은 바가 크며, 특히 철강, 화학, 시멘트, 종이·펄프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重厚長大型産業의 생산회복, 주택건설의 활황, 운수(물자, 사람의 이동)의 활발화 등에 의한 에너지의 신장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은 1986년도에 발생한 「逆오일쇼크」이다. 즉, 계속적인 圓高 등에 의해 원유가격이 실질적으로 제



1차 오일쇼크 때와 같이 된 것에 의한다.

에너지의 내수실적을 보면 석유는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 전력은 6.3% 증가, 가스는 4.4%가 증가되었다. 어느 것이나 계획보다 플러스가 되었고, 특히 최대의 신장을 나타낸 전력은 계획인 1.8%를 크게 상회한 신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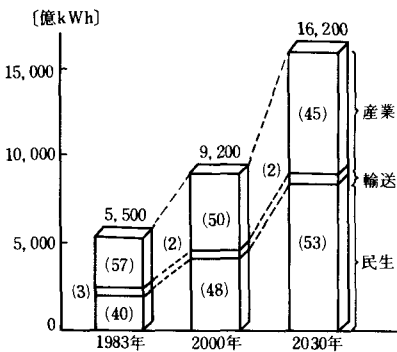
1987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 의하면, 2000년까지의 전력전망은 年率 2.6%였었다. 그러나 1987년도는 그 2년분에 상당하는 6.3%였기 때문에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의 실적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2000년까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정부전망인 年率 2.6%일 경우에 2000년에 450만KW, 3%라면 1,100만KW, 4%가 된다면 2,800만KW나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각 시나리오와 정부전망의 차이를 어떤 에너지, 어떤 전원으로 충족시킬 것인지, 얼마간의 가능성에 대응한 공급면에서의 에너지믹스의 조합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때 정부전망인 2000년도 5,300만KW의 원자력발전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결론내리면서 원자력발전 규모의 착실한 진전을 강조했다.

여기서도 전력수요의 증가가 풍부한 데이터를 토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가격의 변동이 적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그림 2〉 日本의 전력수요 구조 변화